

‘그래도, 낭만’ 달성화석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시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와 연계한 전시 콘텐츠 마련 청년 작가들의 작품 구성으로 지역민과의 문화·예술적 연대 촉진

(재)달성문화재단(이사장 최재훈)은 국내 최초 공립 화석 전문 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전시 ‘그래도, 낭만’을 11월 16일(토)까지 달성화석박물관 3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특별전시 ‘그래도, 낭만’은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청년 작가 5인 김재욱, 문관우, 양수연, 오제성, 전가빈이 참여한 다.

이번 전시를 통해 ‘대구현대미술제’의 50주년을 맞이하

며 개최된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의 문화·예술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그 가치를 달성화석박물관의 설립 이념과 연계해 진행한다.

강효연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의 주제를 계승하는 청년 작가들이 전시 공간의 의미와 특성을 반영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이들은 이를 통해 지역민에게 새로운 문화·예술적 감동을 선사하고 다시 한번 동시대 미술의 경계를 아우르는 문화예술의 장을 펼치고자 한다.

달성화석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시 ‘그래도, 낭만’은 달성화석박물관 내 3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되며, 화~일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 시설 등의 자세한 사항은 달성화석박물관 홈페이지(<https://fossilmuseum.dssi.seou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문화재단 이사



오제성 作_원원의 향아리, 세라믹, 나무, 가변크기, 2021-2024

장은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의 맥이 달성화석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시로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었다. 달성군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실감하고 낭만을 이야기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아이들과 많은 지역민들이 행복한 꿈을 꾸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성문화재단>



양수연 作_온전한 원을 향하여, 비단에 수묵, 스테인리스스틸, 192x261.5x118cm, 2021



전가빈 作_희생만 남은 자기희생, 시멘트, 철근, 합성수지에 도금, 80x80x40cm, 2024(2017)

‘264, 그 한 개의 별’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부활

특별 할인 ‘1만 원의 행복’ 4층 B석, 회차별 50석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세 번째 메인 프로그램인 세계 초연, 창·제작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을 선보이며 특별 할인 ‘1만 원의 행복’을 진행한다.

특별할인에 따라 관람을 원하는 누구나 대구오페라하우스 극장 4층 B석을 회차별 50석에 한해 1만 원에 예매할 수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4층 객석의 특성



상 관객들은 공연 무대를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고 시인의 삶을 담은 애뜻한 선율의 음악에 젖어 어두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이육사의 날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세 번째 메인 오페라 ‘264, 그 한 개의 별’은 10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과 19일(토) 오후 3시에 공연한다. 특별 할인은 대구오페라하우스 4층 B석으로 회차별 각각 50석씩 총 100석에 한해서 진행된다. 티켓은 평일 오후 1시~3시 까지, 공연 당일에는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및 할인 정보는 인터파크 콜센터(☎1661-5946)와 인터파크 홈페이지(tickets.interpark.com) 및 대구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www.daeguoperahouse.org)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053-430-7400

<자료제공:대구오페라하우스>

‘황병석 개인전’ TOOLS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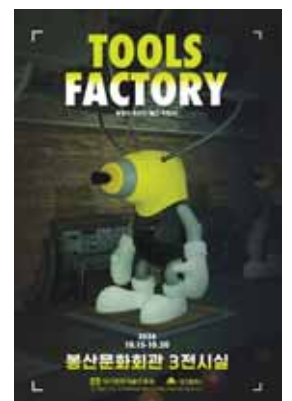
10월 20일(일) 오후 5시까지 봉산문화회관 3전시실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박순태, 이하 ‘문예진흥원’)의 2024년도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 선정자 황병석 씨가 10월 20일(일)까지 봉산문화회관 3전시실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조각가로 활동 중인 황병석 작가의 이번 전시는 유쾌하고 자유로운 공구 ‘Tools’ 시리즈를 전시장으로 옮겨온 전시이다.

자신을 ‘공구 작가이다’라고 소개하는 황병석 작가의 ‘Tools’ 시리즈는 공구에 생명을 불어 넣어 의인화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작품으로 현대인의 삶, 고충을 조각과 회화 작업으로 풀어내는 시각 예술 작업이다.

황작가는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 선정 이후 이전에 하고 있던 조각 작업 외에 회화 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키네틱 아트를 도입해 움직이는 장치에 작업물을 합한 형태의, 생동감 있는 움직임과 정적인 조각을 함께 가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진흥원>